

최근, 담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회사나 레스토랑, 버스 또는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필수 없도록 규칙을 만들어야만 한다. 또, 담배에 관한 CM 등은 어린이에게 앓좋은 영향을 주기때문에, 텔레비전에서도 방송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내생각에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담배라는 것은 누구나 피울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규칙까지 만들어 금지 시킬 필요는 없다.

현대는 민주주의 사회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뭐든지 자유롭게 할수 있다. 우선, 회사에서 근무할때, 만약에 80%의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가정하면, 80%의 사람들이 20%의 사람들 때문에 금연해야한다면 그것은 좀 이상하다. 그러나 20%의 사람들에게 앓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므로, 80%의 사람들이 좀 참거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또 레스토랑 등에서는 금연석과 흡연석을 만들면 된다. 버스나 전철에서는 담배피우는 것을 참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담배 때문에 규칙까지 만들어 금지 시킬 필요는 없다.

내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것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다. 아마, 영화 같은데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멋있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원인이었던 것 같다. 물론 그당시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지금은 건강때문에 담배를 끊으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렸을 적부터 담배를 피워 왔던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은 면도 있고 정신적으로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울까, 피우지 않을까는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무리 금지시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기 때문이다.